



지점소식 ✈️

🌸 서울지점

- 2026년 3월 2일 (월) : 3.1절 대체 휴일

🌸 도쿄지점

- 2026년 3월 20일 (금) : 춘분

🌸 방콕지점

- 2026년 3월 3일 (수) : Makha Bucha Day
- 램차방사무소 해상수출부서 OP 현지담당자 채용

🌸 페낭지점

- 2026년 3월 7일 : 누줄 알-쿠란
- 2026년 3월 20일~22일 : 하리 라야 푸아사 (라마단 종료 축제)

🌸 싱가포르지점

- 2026년 3월 21일 (토) : Hari Raya Puasa

❁ 상하이지점

- 긴급연락처 : 항공 채항자부장 86 155 0214 9791, 해운 공현주부장 86 188 2377 8753

❁ 광저우지점

- 기존 광저우발 인천행 BUP 에 이어 일본 NRT, KIX 행 BUP 판매개시 (26 년 1 월부)

POL	POD	CAN-ICN	ICN-NRT/KIX
CAN	NRT, KIX via ICN	D2, 4: KJ934 10:00~14:20	NRT: KJ194 D2457 / KJ198 D35
		D5: KJ932 10:00~14:20	KIX: KJ192 D357 / KJ182 D246

❁ 다렌지점

- 대련지점 신규오픈 및 26 년 2 월부 정식 업무 개시 (대표번호 : 86-411-3924-8813)

❁ 텐진지점

- ONE 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직항 운송서비스 지속 강화 : 신속한 운송과 경쟁력 있는 운임을 통하여 화물운송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고객의 종합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동남아 무역 고객을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해상 운송 경로 구축중

❁ 밀라노지점

- 특송사업 (배송대행서비스) 개시, 배송대행지 주소 : MAX LOGISTICS S.R.L. Milano, Italy
Viale Europa 59, Edificio 21, 20054, Segrate (MI), Italy

지역동향

❁ 서울지점

- 26 년 들어 반도체, 자동차 부품, 2 차전지 및 전자부품 관련 산업 수출의 점진적 증가로 항공 수요도 점차 개선될 전망
- 환율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변수이기는 하나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과 주요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로 대외 교역 활동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홍콩지점

-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HKD42.1에서 HKD43.1 (KRW7,905)으로 약 2.4% 인상

🌸 도쿄지점

- 중일 갈등 장기화 전망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선거 압승 이후 대일 압박 강화 조치로 중국 상무부에서 미쓰비시 조선, IHI 계열 및 연구기관 등 40여곳을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관찰 명단에 추가

🌸 타이페이지점

- Nvidia의 대만 현지 투자 확대 : 타이베이 (Beitou Shilin Technology Park)에 해외 첫 본사 부지 계약 확정, 이 본사는 AI 연구·개발 및 현지 파트너 협력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 R&D 및 비즈니스 확장의 신호로 해석

🌸 방콕지점

- 태국 경제 성장률 둔화 : GDP 성장률 작년대비 0.5%p 수준 감소 전망 (2.1% -> 1.6%)

🌸 페낭지점

- 링깃환율 강세 지속 : 2024년 초반 280원대에 머물던 환율이 2025년을 기점으로 상승을 거듭하던데 2026년 2월 370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 말레이시아 환율은 조정없이 수직으로 치솟는 기울기가 뚜렷하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달러화가 최근 강세를 보이며 원화 가치를 짓누르는 사이 말레이시아는 외국이 투자유치 호조로 통화 가치가 독자적인 강세를 띠면서 원화대비 링깃환율이 기형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으로 분석

🌸 싱가포르지점

-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4.0%로 작년 1.0%~3.0% 보다 상향 조정
- AI 및 미래 산업 강조. 정부는 AI 발전 촉진을 위한 AI Council 구성과 관련 투자 확대를 언급하며 첨단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정책 초점
- 정부의 해안 보호법 추진에 기업들 부담 증가 우려 : 정부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해안 지역 토지 점유 기업에 방어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안보호법 (Coastal Protection Bill)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임대기간 문제에 대한 우려 증가

🌸 호치민지점

- 베트남 이커머스 '적자생존'시대 도래 : 2025년 전년비 35% 성장 속에서 영세업자 줄퇴출, 수수료 인상, 당국 세무조사 및 짝퉁 추적 등 4,000여개 업체 매출 전무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베트남 위성인터넷 서비스 초읽기 : 지상국 설치 승인, 통신사업 라이선스 발급 이후 후속 절차 진행중, 남.북.중부 모두 4 곳으로 60 만명 대상 서비스 목표, 상용화시 필리핀, 말레이, 인니, 동티모르 이어 동남아 5 번째 서비스국으로 정식 출시일은 미정

❁ 상하이지점

- 중국 재정부는 수출 이후 반송되는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우대 정책 발표 : 전자상거래 상품이 판매 부진이나 기타 사유로 수출일 기준 6 개월 이내, 원형 그대로 반송될 경우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하고 납부한 수출관세는 환급하도록 규정

❁ 광저우지점

- 주요 기관들은 2026 년 중국 경제가 4%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나 중국 정부는 이보다 높은 '5% 내외'의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 진작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 부양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다만 수출은 2.5% 증가에 그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텐진지점

- 텐진시 세무당국의 최신 규정에 따라 국제 운임, THC, 및 항만 부대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출 현지 관련 비용에 대하여 6%의 세금 부과 개시

❁ 밀라노지점

- 최근 에너지 기업 세금 인상과 재정정책에 따라 전력/연료가격 상승 압력 및 트럭 운송비 등 운임 인상 가능성, 또한 창고비도 전체적으로 인상 분위기

❁ 파리지점

- 2025 년 사상 최대 마약 압수량으로 인한 세관 통제 : 단순 밀수 단속을 넘어 물류 공급망 전체의 보안 등급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 전수 조사 비율 전년 동기 대비 상승
- 공급망 자급자족 전략 :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프랑스내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집중하는 정책 지원 강화

물류동향

❁ 서울지점

- 3 월 항공 화물 시장은 중국 춘절 연휴 이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알루미늄 강판 코일 및 미주행 반도체 장비등과 같은 대형 물량 출하가 운임 인상 요인으로 작용
- 3 월 이후 미주노선은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공장 관련 프로젝트성 화물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노선은 중국발 Sea & Air 물량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미주, 구주행을 중심으로 주요 항공사의 판매가 인상이 예상됨

❁ 홍콩지점

- 2026 년 3 월 홍콩 물류 시장은 춘절 연휴(1~2 월) 이후의 계절적 비수기와 글로벌 선복 과잉에 따른 운임 하락 압력이 주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
- 홍콩 친환경 연료 도입 및 물류 현대화 가속화 : 홍콩 LNG 및 메탄올 벙커링 사업을 시작으로 친환경 연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을 통해 저탄소 해상 물류 분야에서 홍콩의 역할을 강화

❁ 도쿄지점

- 2026 년은 일본정부의 항공분야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SAF (지속가능항공연료) 혼합 의무가 본격화되는 해로서 ANA, JAL 등 대형 항공사들은 SAF 를 사용한 화물 운송(Green Cargo) 서비스를 확대하여 프리미엄 운임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
- ANA/NCA 통합이후 아시아노선은 ANA, 북미·유럽노선은 NCA 로 역할을 분담하고 JAL 은 야마토운수와 협업하여 하네다 공항의 심야 슬롯을 적극 활용, A321P2F 기종으로 도쿄 도심 당일 배송을 추진하여 이커머스 및 정밀부품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발표
- 도쿄-오사카 간 '해상 하이웨이' 본격 가동 : 2026 년 3 월부 도쿄-오사카 간 해상 MOL 그룹의 모달 시프트 및 연안 Roro 선를 전면 확대해 나갈 계획, 핵심인 Roro 선은 주 3 회에서 매일 운항 체제로 증편되어 트럭 장거리 주행 거리를 80% 이상 단축함으로써 만성적인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탄소 배출 저감과 물류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
- 3 월은 일본의 회계연도말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수출입 화물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로 집하·운송·통관·배송 전반에 걸쳐 평소보다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타이페이지점

- 타이완발 동남아항 화물 급증으로 항공 SPACE 부족 심각 :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TPE-HAN, BKK, SIN, CGK 항 운임 인상 추세에 있으며 특히 HAN 노선은 전년비 약 15% 인상

❁ 방콕지점

- 2026 년 1 월 전체 수출액은 약 315 억 달러로 전년비 약 24.4% 증가, 수입액 역시 약 348 억 달러로 29.4% 증가 : 항공 운임과 스페이스 확보 경쟁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태국지점에서는 각 항공사 (KE,OZ,KJ) 들과 운영 및 스페이스 관련 협의 완료
- 태국 수출 증가 영향으로 중장기 해운 물류비 상승 우려 : 수출 증가 및 컨테이너 처리량 증가로 항만 및 내륙 운송 비용 상승 압력, 선사 Capacity 조절 및 성수기 진입 시 운임 상승 가능성

❁ 페낭지점

-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 (AK)의 항공화물 자회사인 텔레포트, 홍콩-바레인 노선에 B747F 화물 전세기 운항 -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에 유치 목적이며 바레인을 HUB 로 트럭킹 (RFS)을 통하여 아랍에미레이트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중동국가까지 연계 서비스 제공
- 에어아시아 X (D7), 6 월 26 일부터 바레인 (BAH)을 경유한 이원권을 활용하여 KUL- LON 게이트웍 (LGW) 노선 DAILY 운항 예정
- CMA-CGM 아시아에서 남미항로에 대해 컨테이너당 1,000 달러 운임인상 단행 : 모든 종류의 컨테이너에 대해 적용, 출발지는 일본, 동남아,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아시아며, 목적지는 남미 서안 전체 항만과 남미 동안, 중미 서안과 동안, 카리브해, 멕시코 항만

❁ 싱가포르지점

- 콜드체인, 첨단운송 수요 등 특수 물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물류용 부동산 임대료는 꾸준한 상승세
- 2025 년 싱가포르 총 선박 입항 톤수 약 32.2 억톤, 컨테이너 처리량 약 4,466 만 TEU 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러한 성장세는 2026 년도에도 지속될 전망

❁ 호치민지점

- 호치민 항만 적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통 인도까지 2~3 일 소요, 해상 운임은 한국, 미주, 구주행을 중심으로 소폭 하향 추세

❁ 충청지점

- 춘절연휴 기간중 춘설 선물에 대한 수입 수요가 높아 호주 유제품, 일본·한국 화장품, 수입 사탕 등 상품 주문이 크게 증가, 충청시 보세상품 전시거래센터의 2 월 주문량은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
- 충청시 위저이역 출발 충청 제조한 '전기차 수출 전용 열차' 지속 운행중 : 평균적으로 매일 열차가 출발하여 육해신통과 중유럽 열차를 통해 동남아와 중유럽 등지로 운송

❁ 상하이지점

- 춘절 연휴 이후 제조업체의 생산 재개로 인한 전반적인 출하량 증가와 3 월 중 애플 신제품 출하가 예정되어 있어 PVG 발 항공화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광저우지점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5 년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이 이커머스 수요에 힘입어 성장 흐름을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둔화되며 '정상화 국면'에 들어갔다고 평가, 관세 인상과 디미니미스 면세 기준 폐지 등 통상 변수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관세부과 전 선적을 앞당긴 '프론트로딩'과 아시아 역내 및 아시아-유럽 수요 증가가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정리,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항공사가 연간 8.4%로 가장 높은 수요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북미는 연간 -1.3%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 2026 년 수요 증가율을 2.4%로 전망하나 통상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
- 중국 세관 통계 기준 2025 년 12 월 이커머스 수출이 전년 대비 9% 감소하며 2022 년 1 월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 미국의 de minimis 규제 이후 미국행 이커머스 물량 감소가 이어졌으며 유럽행 물량도 12 월 들어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26 년 1 분기 말까지 수요나 운임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

❁ 선전지점

- '신 3 종' (신에너지차, 리튬배터리, 태양광제품) 수출 붐과 함께 선전의 주요 제조업체도 3C 전자제품, 정밀기기, 고급의류, 스마트 하드웨어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수출품목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
- 순펑 항공이 최근 '충청-양곤' 정기 국제화물노선을 개설, 순펑 항공의 국제 노선이 연결하는 아세안 국가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8 개국으로 노선 확대

- 머스크와 CMA CGM, 남미 동부 항로 조정, CMA CGM 과 머스크가 공동운영하는 극동-남미 동해안 SEAS3/ASAS2 노선이 최근 조정되어 홍콩 기항이 신규 추가되고 선전 서커우항 기항은 유지
[조정 항로] : 상하이→홍콩 (신규 기항)→선전(서커우)→싱가포르→상파울루(산투스)→이타자이→싱가포르→상하이, 이 항로에 평균 7,000TEU 급 컨테이너선 11 척 운항중

🌸 칭다오지점

- 범야항운, 엔타이-하이난 자유무역항 바지선 운항 (Feeder vessel)으로 연안 물류 네트워크 강화

🌸 밀라노지점

- 미국-이란 전면전에 따라 해상 운임 상승 및 항로 리스크 확대
- 말펜사 공항 활주로 보수 공사 (2026년 3월16일~5월9일)로 유럽내 운항편들이 대체공항 (리나떼공항)으로 이동중이나 장거리 운항 항공사 (KE, KJ, C8) 들은 아직 영향 없음

🌸 파리지점

- 항공 물류 리드타임 증가 : 통관 지연으로 인한 CDG 공항의 화물 처리 속도 둔화
- 르아브르 등 주요 관문 항구에서 세관 화물 검사빈도가 증가하여 터미널내 화물 반출입이 평균 12~24 시간 추가 지연되는 양상

주요 항공사/선사 스케줄 변동사항 📌

🌸 서울지점

- 3 월에는 연휴 이후 감편구간의 단계적 복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노선에서는 하계 스케줄 전환 준비에 따른 슬롯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미주 및 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공급 정상화 움직임 전망

🌸 홍콩지점

- Hong Kong Air Cargo, 2026 년 2 월부 그리스 아테네 (ATH) 2/W 운항개시 (D14)
- Hong Kong Air Cargo, 2026 년 2 월부 키프로스 라르나카 (LCA) 1/W 운항개시 (D2)

- Hong Kong Airlines HKG–YVR Passenger Flight Block Space Agreement (BSA) 운영개시 (26.3.1. ~ 27.2.28, A333, Daily 운항)
- ✿ 방콕지점
 - 3 월 방콕-인천노선의 KJ 화물기 운항 횟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대체 항공편으로 물량이 집중되면서 화물공급 확보 애로 → 3/W에서 3/1, 5, 12, 19, 26 등 총 5 회 CANCEL
 - Laem Chabang Port Phase 3 확장에 따른 선박 확대로 운임 안정화 기대
 - 연간 처리능력 1,100만 TEU → 1,800만 TEU 확대
 - 수심 18.5m 확보 → 초대형 선박 (ULCV) 접안 가능
 - 항만-철도 직결 인프라 구축 (철도 비중 30% 목표)
- ✿ 페낭지점
 - PEN-ICN : KE 화물기 주간 6 회, KUL-ICN : KE 화물기 주간 2 회, 여객기 DAILY 지속 운항
- ✿ 호치민지점
 - ICN 행 여객기 KE /VN 야간편 WIDE BODY 운항 (OZ 는 일일 2 편 모두 NARROW BODY)
- ✿ 광저우지점
 - OZ CAN- ICN 오전 여객기 (OZ370) DAILY WIDE BODY 운항, 2026.03.02 부
- ✿ 칭다오지점
 - OZ, 2026 년 3 월 29 일부터 한중 노선 운항 대폭 확대 : 충칭, 청두 등 인기 노선이 Daily 운항으로 재개될 뿐만 아니라 베이징 (20/W), 다롄 (10/W) 증편 운항 예정
- ✿ 밀라노지점
 - 2026년 3월말부터 OZ, MXP/ICN 주간 3회 여객기 취항 계획 (MXP 출발 기준 화/목/토)
- ✿ 파리지점
 - TW 주말 항공편 결항 (3/7~3/21, 총 3 편)